

◆머느리권씨 열전 24-2

이귀(李貴 연안 이씨)의 어머니 증 정경부인 권씨 (시중공파22세 권용의 딸)

광해군 즉위 후, 이귀는 광해군을 지지하며 정인흥을 끌어줄 것을 상소하기도 했으나, 이후 해주 옥사에 연루되어 유배를 가게 되었다. 1619년 풀려나 1622년 평산부사가 되었으며, 이때 김류, 최명길 등과 함께 인조반정을 준비했다. 반정 성공을 위해 이흥립을 회유하려 했으며, 반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반정 후, 그는 1등 공신으로 추대되었고, 판서직에 올랐다.

반정 이후, 이귀는 김류와의 반목 속에서 정치적으로 복잡한 상황을 겪었다. 이귀는 이괄의 난에서 이괄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복인들의 처벌을 적극적으로 수행했다. 그는 복인 세력들을 처벌하며 대북과 소북 모두를 제거하려 했고, 복인의 주요 인물들이 처형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무자비한 숙청은 후에 복인들에 의해 복수의 시도로 이어졌다.



증 영의정 연성(연안)부원군(정1품), 연안이씨 이정화, 증 정경부인 안동권씨 행적비.

인조반정 이후, 이귀는 권세를 쥐었으나 예송논쟁에 휘말려 탄핵을 받았다. 그 후 정묘호란 때는 후금에 대한 징신을 주장하기도 했으며, 인조에게 신임받지 못한 채 정치적인 갈등을 겪었다. 결국 그는 국사에 대한 열정과 헌신에도 불구하고 큰 정치적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이귀는 이이(李珣)와 성혼(成渾)의 문하에서 학문을 익혔으며, 정계에서는 직언을 서슴지 않는 강직한 인물로 알려졌다. 그는 광해군의 실정(失政)을 비판하다가 숙전부사로 좌천되었고, 이후 이천으로 유배되었다. 하지만 그는 이곳에서 광해군을 폐

위하고 새로운 국왕을 세울 필요성을 절감하였고, 김류, 최명길, 신경정 등과 함께 인조반정을 주도하였다.

반정 이후 그는 연평부원군에 봉해졌으며, 대사헌, 이조판서, 좌찬성 등 요직을 역임했다. 또한 남한산성의 수축, 호패법 시행, 군사 양성 등 국방 강화에 힘썼다. 정묘호란 때는 강화도로 왕을 호종했으나, 화의를 주장하다가 탄핵을 받기도 했다.

그의 기록 중 “목재일기”는 당대 정치 및 사회상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사료로 평가되고 있다. 시호는 충정(忠定)이며, 인조 묘정에 배향되었다.

아들 충익공 이시백은 영의정에 정백려 , 충정공 이시방은 호조판서 증 영의정이다.

그리고 딸 이여순은 그 유명한 예순(禮順)스님이다. 김자점(김구의 11대조,간신의 전형)의 형 김자점의 부인이다가 청상이 되어 스님이 되었다. 인목대비와 마지막 까지 벗이되었다. 동대문 밖 낙산 자락의 청룡사 출신이다. 이 절은 가까이 있었지만 평소 무심히 지나치던 곳이었다. 청룡사는 고려 태조의 명에 따라 세워진 유서 깊은 천년고찰이었다. 조선 시대에는 왕실 미망인들이 출가하여 머물렀던 정업원이 설치되기도 했다. 예순 스님은 광해군, 인조, 효종 연간에 청룡사의 주지로 있던 비구니였다. 이로 인해 청룡사에는 궁중의 다양한 사연이 깃들었고, 예순 스님의 삶도 이와 다르지 않았다.



청룡사(정업원)은 조선시대 궁궐에서 쫓겨난 왕비나 후궁들이 머물며 수행하던 사찰이었다. 단종의 비 정순왕후는 남편의 사후 유배와 은둔 속에서 살다가 정업원에서 평생을 수행하며 단종의 명복을 빌었다. 정업원의 비각 현판 “前肇後藏於千萬年”은 정업원의 영구성과 단종을 향한 정순왕후의 애절한 마음을 상징하며, 이는 영조의 친필로 더욱 의미가 깊다.

예순 스님은 인조반정을 주도한 이귀(1557~1633)의 만딸이었다. 그녀는 청상과부가 된 후 머리를 깎고 청룡사의 비구니가 되었다. 당시 유교적 규범이 엄격한 조선 사회에서 그녀는 한때 유생들로부터 비난을 받기도 했지만, 불심을 꺾지 않았다.

그녀는 김직제의 옥, 계축옥사, 폐모론, 인조반정과 같은 역사적 사건 속에서도 불교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 궁궐 사람들이 불교에 귀의할 수 있도록 도왔으며, 조선 시대 불교 존속에 기여했다. 오늘날 여성 불자와 비구니들에게 귀감이 되는 인물이다.

예순 스님의 본명은 이여순(李禮順)이며, 1587년 (선조 20년)에 태어났다. 임진왜란이 발발한 후 어린 시절 전쟁의 혼란을 겪었다. 그녀는 미색이 뛰어나고 학문적 재능이 있어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았다.

15세에 김자겸(金自兼)에게 시집을 갔다. 남편은 불도를 좋아하여 오언관(吳彦鄩)과 함께 불교를 공부하며 가까이 지냈다. 하지만 남편은 병약했고, 결국 세상을 떠났다. 그는 죽기 전 아내와 오언관에게 시를 남기며, 아내가 계속 불교를 공부할 것을 당부했다. 심지어 자신은 아내 여순이 있으니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고 그는 권신 김자점의 형제로서 관직에 나가지 않고 오로지 불도와 유학을 연구하며 살았다.

남편과 사별한 이여순(李女順)은 오언관과 불교를 논하며 공부를 이어갔다. 그는 그녀에게 불교 경전을 가르쳤고, 그녀는 점차 불교의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 결국 인간 세상의 무상함을 깨닫고 출가를 결심했다.

그녀는 광해군 2년(1610년), 23세의 나이에 청룡사에서 머리를 깎고 비구니가 되었다. 범명은 예순(禮順)이라 하였다.

청룡사는 왕실 여성들이 출가하여 수행했던 사찰이다. 고려 말에는 공민왕비 해비 이씨가, 조선 초기에는 태조의 딸 경순공주가 이곳에 머물렀다. 이후 단종비 정순왕후 송씨도 숙의들과 함께 청룡사에서 출가하였다.

다음호에 계속
글 권오철기자

이 구원될 수 있기”를 바란다는 뜻을 전하였다.

생전 추연 선생의 ‘학문은 성리학을, 행실은 성실을 바탕으로 한다.’는 지론을 받들고 선생의 학문적 성취를 기리는 이날 제향에는 한국국학진흥원 연구위원을 비롯하여 경향 각지에서 모여든 유림과 안동 권문의 종친 회원, 후손 등 오십여 명이 참여하였다. 함례는 초헌관에 김영근, 아헌관에 진화섭, 종헌관에 송영래, 축관에 성수현 집례에는 김갑희 등으로 분절해, 집례의 홀기에 따라 강신례, 참신례, 초헌례, 아헌례, 종헌례 순으로 엄숙하게 봉행되었다.

예필(禮畢) 후 김영근 초헌관으로부터 “앞으로도 향사에 적극 참례를 당부”한다는 요지의 인사가 있는 뒤에 태동서원 허호구 이사장의 입지설(立志說)을 주제로 한 강독이 이어졌다. 입지설의 요체는 ‘누구나 학문을 할 적에는 반드시 먼저 뜻을 세워야 하는데, 뜻도 세우지 않고 학문한다는 이가 학문을 할하는 경우를 보지 못하였다. 공수가 활시위를 당길 때 반드시 과녁을 목표로 지향하니 마침내 과녁에 명중하고, 길 가는 이는 발을 때는 시초에 귀착할 곳을 목표로 지향한다. 그리하여 나아가 목적지에 도달함과 같은 이치’란 뜻이다.

위 입지설을 설파한 추연 선생은 고종 기해(1899)년 11월 23일 합천 초계면 유하리에서 태어났는데, 곁에 웅의 상서로움을 보고 용원(龍鉉)으로 이름을 지었다 전하며, 태동서원 또한 초계 태암산의 동쪽이라는 뜻과 동양의 도를 지키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부산총친회 사무국장 권재영

우리는 시공간(時空間)에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 시간이란 무엇인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른 말로 표현 해 보면 ‘변화’이다. 이 변화란 춘하추동(春夏秋冬)을 뜻한다. 우주를 포함하여 그 안의 무량수(無量數)의 개체들은 주기(周期)의 차이만 있을 뿐, 그 무엇이든 춘하추동을 겪는다.

오행(五行)의 목화금수토(木火金水土)도, 주역의 원형이정(元亨利貞)도 춘하추동을 의미한다.

태어나고, 꽃피고, 열매 맺고, 갈무리된다. 이 모든 것은 새로운 재탄생을 위해서이다. 이것이 자연의 시간적 의미이다.

시간은 우리에게 보다 확실한 두 가지를 가르친다. 그 첫째는 보이는 ‘현상에 집착’하지 말라. 왜냐하면 보이는 것들은 곧 변해 버리기 때문인 것이다.

그 두 번째는 ‘꽃은 목적이 아니다’ 이다. 왜? 꽃은 열매를 위한 기초작업인데도, 우리네는 이 꽃(임신출세, 부귀공명, 무병장수 등)의 일시적 화려함을 보기 때문에 어제도, 오늘도, 아마 내일도 그것만 잡으려 할 것이다.

법인세수정신고 -제출용



권오형
경영학박사·공인회계사·세무사

가능
- 단, 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수정신고
를 빠르게 해야 합니다

신고 구분	수정신고 기한	가산세 감면 여부
자진 수정신고	세무조사 등 착수 전까지	일부 가산세 감면 가능
경정청구에 따른 수정신고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	한금 가능

3. 수정신고할 내용
가. 수정신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포함
해야 합니다.

- ① 과소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보완
- ②잘못 입력한 수입금액, 비용, 손익 항목의
정정
- ③각종 공제, 감면 항목의 수정
- ④관련된 증빙자료 제출
- 나. 신고서류 예시
- ① 수정된 법인세 신고서
- ② 수정 명세서 (변경 내역 요약)
- ③세금 계산서, 거래 명세서 등 추가 증빙 자료

4. 문제점 및 벌칙
가. 가산세 부과

- ① 과소신고가산세: 산출세액의 최대 10~40%
- ② 납부불성실가산세: 지연된 기간에 따라 1일
0.025% 가산
- ③무신고가산세: 아예 신고를 안 한 경우 최대
40%
- 나. 세무조사 시 불이익
- ①세무조사 전에 스스로 수정신고를 하지 않
으면, 추정세액 + 가산세 + 신 용등급 하락 등
불이익

- ②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사기 등)이 있는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형사처벌 가능
성도 있음.

5. 기타 참고사항
가. 수정신고는 전자신고(홈택스) 또는 세무
서 방문을 통해 가능
나. 필요시 공인회계사등 세무대리인의 도움
을 받아서 정확한 수정신고를 정확히 할 필요
가 있음.
다. 특히 소득금액이 과소신고된 경우에는
되도록 빨리 수정신고를 하여 가산 세의 부담
을 최소화 하도록 하여야 한다.



肅公) 후손 50여 명이 참석했다.
권태수 문경공 종중 회장

유학자 추연 권용현 선생을 기리는 합천 초계 태동서원 제향 봉행



지난 4월 22일(음력 3월 25일) 오전 10시부터 경
남 합천군 초계면 유하리에 있는 태동서원(泰東書
院, 원장 김진웅)내 송덕사에서 우리나라 유학의 거
목인 추연(秋淵) 권용현(權龍鉉, 1899~1988) 선생을
기리는 제향이 엄숙히 봉행되었다. 올해 제향에서
문병국 외임(外任)은 현관 소개와 함께 인사말을 통

하여 굿은 날씨에도 추연 선생 함례에 참석한 전국
유림과 문중 후손들께 감사 인사를 전한 다음 “추연
선생은 평생 초야에 묻혀 학문에만 정진하여 성리
학, 예학에 막힘이 없을 만큼 해박한 정통 유학자”임
을 강조하며 “앞으로 유림과 종친 회원 여러분의 적
극적인 관심과 참여로 선생의 선배 정신이 더욱 높

영과 육의 치료의 샘터

권용만 교수(동양철학, 심리학박사)

무자진경(無字眞經)

무자진경(無字眞經)이란, 참 경전에는 글이 없다.
달마노조(達磨老祖)의 계승에 나오는 말이다.
그 후반부에 보면,

달마서래일자무(達磨西來一字無)
전방심의용공부(全憑心意用功夫)
약요지상구불법(要假紙上求佛法)
필첨침건동정호(筆沾침乾洞庭湖)

그 뜻은,
달마가 서전에서 한 글자도 가져오지 않았으니
오로지 심의(深意)에 의지하여 공부하라
만약 종이 위에서 불법을 구하려 한다면
동정호 호수에 붓글을 찍어서 말리려무나!
즉, 경전의 글을 읽어 무엇을 깨달을까 생각하지



교는 자신들이 믿는 경전을 다 가지고 있다. 또 그것
만이 참 진리라고 말한다. 세상의 사람들이 말하는
진리는 객관 타당성과 그 명확한 기준이 없으니 말
이다. 그럴지도 모른다. 모든 것은 자신이 깨우쳐 아
는 만큼만 보인 것이 아니던가?

그러나 무어라고 해도, 참 진리는 가까이에 있는
것이다.

노란 뜨면 보이고, 피부에 접해있다. 경전을 통해
평생을 매달려서 얻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
다. 그런 것은 아니다. 구월이나 해탈이 틀과 형식의
순서를 다 한다고 해서 온다고 하는 어리석은 생각
은 이제쯤은 버릴 때도 되지 않은가?

우리가 찾으려는 진리는 늘 우리 안에, 그리고 우
리 밖에 늘 존재하는 이치를 깨달을 시간이 찾아온
것이다.

마라! 는 정말로 구도(求道)
의 방법을 이르는 말이라라.
깊이 이해를 하지 못하는
종교인들에게 힐난의 소리를
들을 수도 있다. 그러나 어찌
하랴, 그것이 진리인 것을…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종

문충공 한식 제향 봉행

문충공(文忠公) 양촌(陽村) 권근(權近, 1352~1409)
선생 한식 제향을 4월 5일 10시 충북 음성군 방축리
사당에서 엄숙하게 봉행하였다.

초헌관 권태수, 아헌관 권영정, 종헌관 권혁원, 집
례 권오상, 대축 권오협으로 분절하여 헌작하였다.
비가 오는 곳은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권오협 문충
공 회장을 비롯하여 권혁중 사무국장, 권세환 전 상
주교육지원청장 등 문충공의 네 아드님 총제공(總
制公), 문경공(文景公), 제간공(齊簡公), 안숙공(安

그 세 번째는 ‘열매는 나누어야 한다’. 그렇다 열
매는 반드시 나누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연
이 준 선물을 필요한 만큼을 제외하면 모든 이에
게 나누어 주어야 한다. 왜? 모두 다 자연이 준 선
물이기 때문이요, 이 나눔이 흥익인간이기 때문이
다. 진리도 이같이 나누어 가져야 하기에 이 글을
쓰고 있다.

그 네 번째는 ‘열매는 갈무리(숙성)을 통해 새로
운 생명을 탄생해야만 한다’이다. 열매 하나가 새로
운 생명으로 재탄생하지 못하면 그대로 썩고 말 것
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작은 겨자씨 한 알이 땅에 떨
어져 죽지 않고 자라면 큰 나무가 되어 모든 사람에
게 그늘을 줄 것이라고 말씀하였다.

이 모든 것이 또한 자연순환과 생명순환의 진리
가 아니던가!
이것이 곧 시간이다.
한자어의 시간(時間)에 보면 날일 자가 두 번 들
어간다. 날은 곧 태양의 순환을 의미하기에 그렇게
썼으리라.
다음은 공간이란 무엇인가?
이 또한 다른 말로 바꾸어 보자.
공간이란 음양(陰陽)이다. 손바닥으로 허공을 저

어 보라. 분명 저항을 느낀다. 공간도 음양의 기운으
로 가득 차 있다.

음양의 입자는 서로 부닥치며 끊어지 돌고 있다.
이러한 음양의 조우(遭遇)는 무수한 개체의 생명
(生滅)을 무한히 거듭하고 있다.
극미(極微)와 극대(極大)의 세계는 우리들의 경
험 밖이다.

그렇다면, 경험 안의 음양의 세계를 한번 보자.
날씨가 서로 만나 자식을 창조하고, 선악이 서로
부딪치며 사랑을 만든다.

낮과 밤이 교차하면서 하루를 만들어 낸다.
공간은 우리에게 분명한 가르침을 준다. 공간은
상대성원리의 세계이다.

상대가 없는 창조란 있을 수 없다. 그 상대는 적이
아니다(선악이원론). 이 상대는 틀린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를 뿐이다.

그러한 연고로, 집착하는 이는 시간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다.
적개심이 드는 사람은 공간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다.
이 집착과 적개심이 나를 고통과 질병으로 인도
한다.